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3-28호 | 2023년 10월 17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정태호 | idp.theminjoo.kr

## 대한민국 '신중년' 공감 정책 - ② 사회적 웰빙

-신중년의 사회 자본 향상과 사회적 임파워먼트,  
'지역공동체 기반·사회적/비영리섹터 주도·사회서비스 확대' 3박자로 해결-

고 승 연 연구위원(사회복지학 박사)

### 《 요약 》

#### ■ 신중년의 사회적 웰빙 현황

##### ○ (사회 자본)

- ①포용성·차별 - '나이' 외엔 청년층보다 차별 경험 적어, 타인에게 닫혀있는 60대
- ②호혜성·사회적 관계망 -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먼저, 점점 좁아지는 사회적 관계망
- ③개인간 신뢰·소통 - 근거리 '이웃' 중심의 소통과 높은 신뢰관계 형성

##### ○ (복지·여가·평생학습)

- ①복지 -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2년 전보다 '좋아졌다' 50%, '고용서비스'는 20대보다 50대가 더 필요
- ②여가 - 신중년의 60%가 노후에 여가생활 희망, 여가생활 만족도는 30% 수준에 불과, '비용'이 가장 큰 장벽
- ③평생학습 - 목적없는 학습은 NO!,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부족 등으로 학습 참여는 소극적

##### ○ (우울감·삶의 만족도) 41.5% '나는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3명 중 1명은 우울, 삶에 '만족한다' 38.7%

#### ■ 신중년의 사회적 웰빙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 ○ 사회적·비영리 섹터의 역량 강화, 세대간 통합 및 다양한 계층의 신중년을 포용하는 참여·소통의 장 확대

-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이 사회적 웰빙의 밑거름, 사회적·비영리 섹터의 선진적 역할의 적극적 모색
- 자녀세대와 함께하는 '2050투게더'(가칭)를 지자체 공동 사업화, 세대 소통 강화 및 사회 갈등 해결의 마중물
- 좁은 사회적 관계망과 집단내 높은 신뢰도는 오히려 갈등 심화, 지역 중심의 '신중년 사회 자본 향상 프로젝트' 가동

##### ○ 신중년의 평생교육과 여가활동의 벽, 사회서비스 확대로 해결

- 신중년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는 고비용·저효율의 노인복지 비용 절감의 최선책, 신중년을 포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추진
- 평생교육은 사회적 관계망 및 소통 확대의 지름길, 뚜렷한 학습 목표의 제시와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 신중년 여가활동 확대를 위해 '신중년 문화바우처' 및 '문화동행서비스' 도입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 ‘대한민국 신중년 공감 정책’ 두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며

- 신중년(5060대)은 생애주기상 경제적, 사회적 정점을 지나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위축기, 사회적으로 뿐만아니라 개인적 삶의 반경도 축소되면서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
  - 신중년의 경제사회적 상황과 달리 자녀인 청년세대와 부모인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오히려 증가
  -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더 소극적으로 변화
- 더욱이 최근 지금까지 지켜온 역사적 및 사회적 가치와 원칙들이 존중받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어른세대’로서 무력함과 절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는 어른세대인 신중년을 사회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사회 갈등까지 부추기면서 신중년의 사회적 입지를 좁히고 있는 상황
  - 거기에 신중년을 위한 마땅한 사회적 소통의 場도 부족, 결국 사회적으로 점점 더 무기력, 소극적으로 변화
- 신구세대를 잇는 우리 사회의 견인차로서 신중년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회적 임파워먼트의 유지·강화 필요
  - 신중년의 삶은 청년이나 노인문제 등 주요한 사회적 현안 밖에 있어 절대적·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 부족
  - 신중년이 제 역할을 찾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초고령사회의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라는 인식과 이에 따른 정책적 관심 필요
  - 즉, 신중년의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유지 또는 강화시켜,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회적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고령화 대책
- 이에 본고는 ‘대한민국 신중년 공감 정책 - ①경제적 웰빙<sup>1)</sup>’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로서, 신중년의 사회적 웰빙 현황 분석을 통해 사회적 웰빙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현황 분석은 개인의 사회적 삶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 수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 자본 분석<sup>2)</sup>을 시작으로, 복지서비스·여가·평생학습 상황을 살펴보고, 신중년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분석을 수행<sup>3)</sup>
  -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끝으로 신중년 사회적 웰빙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

1) 고승연. (2023. 7. 14.), 『대한민국 ‘신중년’ 공감 정책 - ①경제적 웰빙』,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3-22호

2)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유형과 범위 다양, 본고는 포용성과 차별, 호혜성과 사회적 관계망, 집단간 신뢰와 소통 수준 3가지 영역으로 검토함

3) 현황 분석을 위해 매년 발표되는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와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

# I. 신중년의 사회적 웰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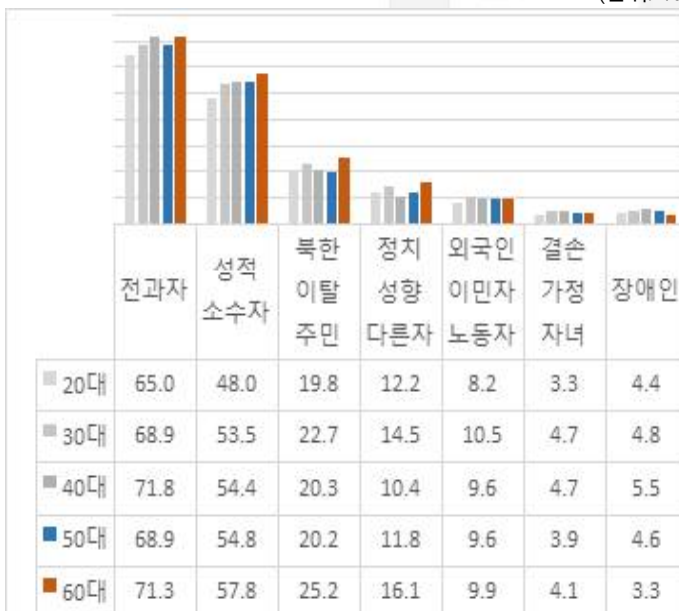
## (1) 사회 자본4)

### □ (포용성·차별) '나이'외엔 청년층보다 차별 경험 적어, 타인에게 달혀있는 60대

- '전과자'에 대한 포용성이 가장 낮고, '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 순, 전반적으로 60대의 타인 포용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50대와 60대간 차이도 큰 편
  - 대체로 20대가 가장 포용적인 편, 50대의 포용성은 대상에 따라 혼조
  - 신중년은 '전과자'에 대한 포용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특히 낮고, 성적소수자는 연령 증가에 따라 포용성이 감소하여 20대를 제외하고 50% 이상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
- 사회적 차별경험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 주요 원인은 '연령'→ '직업/소득'→ '학벌' 순, 신중년은 주로 '나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배제를 경험
  - 신중년은 '연령' 외에 '출신지역', '정치성향', '가족상황' 등에서도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
  - '연령' 차별 경험은 60대에서 매우 심각(22.6%), 결국 '연령'이 취업 등 사회적 활동 전반에 제약으로 작용

< 타인 포용성('받아들일 수 없다') >

(단위: %)



주: 60대는 60~64세

자료: 「사회통합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22년)

< 차별 경험('차별당한 경험이 있다') >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때문에)	12.9	9.5	10.6	12.5	22.6
직업/소득	14.4	14.3	12.3	10.5	8.3
학벌	14.2	12.0	9.7	9.3	8.4
고용형태	11.9	12.0	8.7	7.4	8.8
성별	12.2	10.1	7.9	6.6	7.3
외모	9.3	7.5	6.0	5.8	4.3
출신지역	3.4	3.7	4.7	5.2	4.9
정치성향	1.3	2.4	2.7	3.6	4.7
병력	2.7	2.2	1.7	3.4	2.3
종교	1.8	2.6	1.8	2.6	1.4
혼인상황	3.9	4.7	2.9	2.4	3.1
가족상황	1.8	1.4	1.7	2.4	1.9
출신국가/인종	3.2	1.6	0.8	1.6	1.8
장애	1.0	1.5	1.2	1.4	1.5
성정체성	1.4	0.7	1.0	1.2	1.1
임신/출산	.8	2.5	1.6	0.9	0.8

자료: 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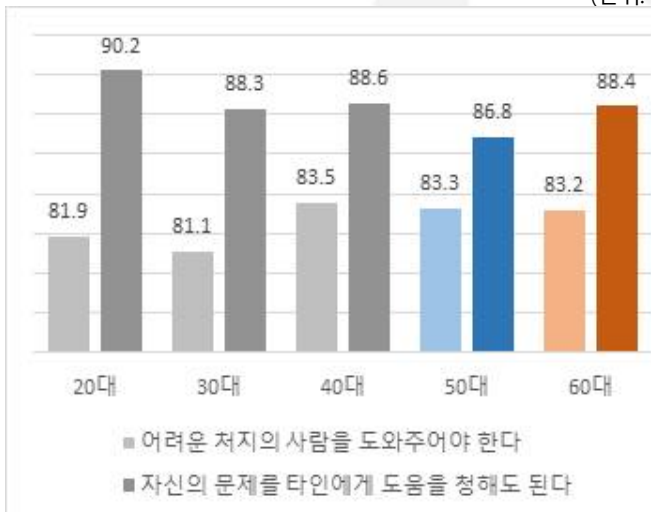
4) [별첨 2] 사회 자본의 개념

□ (호혜성 · 사회적 관계망)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먼저, 점점 좋아지는 사회적 관계망

-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성'에 대해 80% 이상이 긍정, 하지만 과거에 비해 도움을 받는 것에는 적극적, 도움을 주는 것은 소극적으로 변화
  - '타인에 대한 호혜성'은 40대 이후 증가, '자신을 위한 호혜성'은 20대가 가장 높으며 연령에 따라 호혜성에 다소 차이
  - 5년 전에 비해 '타인에 대한 호혜성'은 4%p 이상 감소한 반면, '자신을 위한 호혜성'은 증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타성 감소
- 사회적 관계망은 연령 증가에 따라 좁아져 60대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취약, 특히 '자금차입 대상'의 감소 뚜렷
  - 연령 증가에 따라 경제적 · 사회적으로 위축되면서 도움을 요청할 대상도 감소
  - '가사를 도와줄 사람'과 '대화상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5년 전에 비해 감소
  - '자금차입시 요청대상'은 부모 등 직계가족으로부터 도움이 어려운 50대부터 크게 감소, 60대는 3명 중 1명만이 '있다', 코로나19 공적 지원 확대로 5년 전에 비해서는 다소 호전

< 호혜성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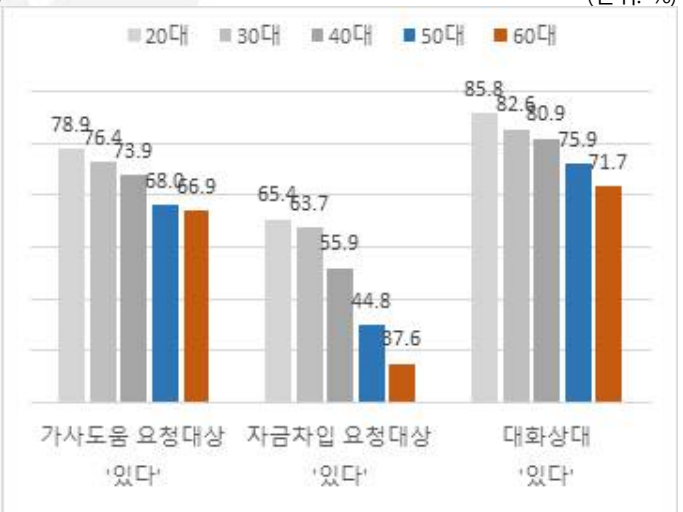
(단위: %)



주: 4점 척도 중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응답 합  
자료: 「사회통합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22년)

< 사회적 관계망 수준 >

(단위: %)



주: 좌동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21년)

< 5060세대의 호혜성 및 사회적 관계망 변화('17 vs. '22) >

(단위: %p)

	호혜성 변화		사회적 관계망 변화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도움을 청해도 된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가사도움 요청대상 '있다'	자금차입대상 '있다'	대화상대 '있다'
50대	1.4	-4.6	-5.3	1.5	-2.6
60대	4.7	-4.8	-7.3	0.1	-4.3

주: '17년 vs. '22년, 호혜성 자료는 '17년 60~69세, '22년 60~64세

## □ (개인간 신뢰·소통) 근거리 '이웃' 중심의 소통과 높은 신뢰관계 형성

### ○ 연령 증가에 따라 '이웃'에 대한 신뢰수준 향상, 의존도 증가

- '이웃'을 제외하고 신중년의 타인 신뢰도는 40대 이후 다소 하락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웃'에 대한 신뢰도 증가가 뚜렷하여 60대의 71.9%가 이웃을 신뢰, '지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17년에 비해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소폭 감소한 반면 다른 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향상

### ○ 연령 증가에 따라 '이웃간' 소통 향상, 신중년은 근거리 이웃 중심의 좁은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빈번한 소통이 특징

- '이웃간' 소통이 연령 증가에 따라 소통 증가 뚜렷, 60대의 절반가량(49.1%)은 이웃과 소통이 된다는 의견, 반면 60대는 '가족 간', '직장 구성원간' 소통은 타 연령층에 비해 어렵다고 인식
- 신중년과 청년은 3명 중 1명 정도가 '세대 간에 소통이 된다'고 응답, 세대간 갈등 가능성 함축
- 코로나19 등으로 '17년에 비해 이웃 간 소통 감소, 60대는 세대 간 소통도 감소

< 신뢰 정도('신뢰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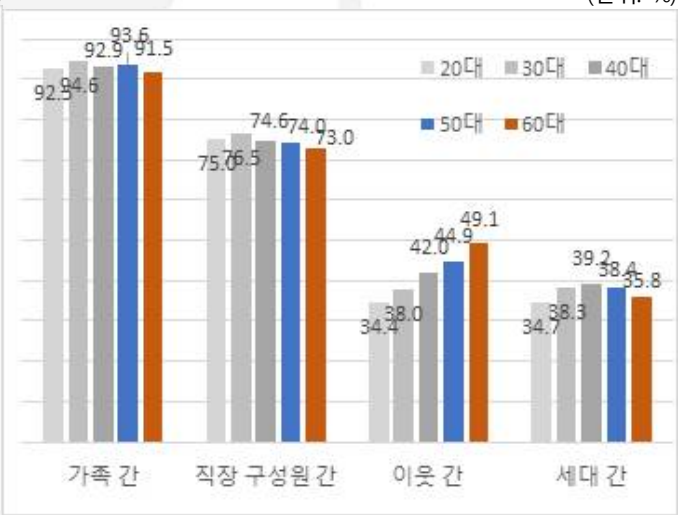
(단위: %)



주: 4점 척도 중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응답 합  
자료: 「사회통합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22년)

< 소통 수준('소통이 이루어진다') >

(단위: %)



주: 4점 척도 중 '약간 이루어진다', '매우 잘 이루어진다' 응답 합  
자료: 좌동

< 5060세대의 신뢰도와 소통 수준의 변화('17 vs. '22) >

(단위: %p)

	신뢰도 변화				소통 수준 변화			
	이웃	지인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가족 간	직장 구성원 간	이웃 간	세대 간
50대	-1.9	6.1	4.1	2.3	5.8	0.9	-3.2	1.1
60대	-1.4	5.6	6.9	1.0	6.0	5.1	-5.5	-2.9

주: '17년 vs. '22년, 호혜성 자료는 '17년 60~69세, '22년 60~64세

## (2) 복지서비스 이용

### □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 2년 전보다 '좋아졌다' 50%, '고용서비스'는 20대보다 50대가 더 필요

○ 코로나19 기간 중 신중년의 50% 이상이 보건의료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졌다'고 인식, 청년층과 뚜렷한 인식 차이, 긍정적 인식은 50대가 최고이며 60대에 소폭 감소

- 신중년의 생활여건이 '보건의료 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크게 호전('19년 대비), 취약계층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중심의 코로나19 정부 대책의 효과

· 보건의료서비스 '나빠졌다': 20대 5.8%, 30대 7.5%, 40대 7.1%, 50대 6.9%, 60대 7.0%

· 사회보장제도 '나빠졌다': 20대 6.6%, 30대 7.0%, 40대 8.5%, 50대 6.0%, 60대 6.2%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화·여가 생활 여건은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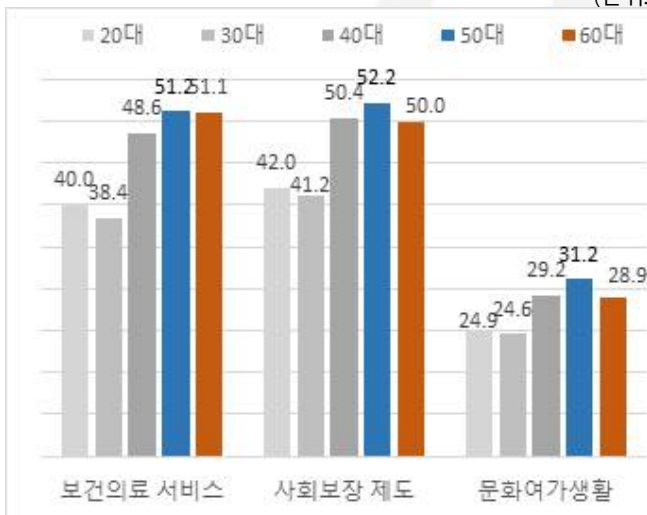
○ 신중년의 3명 중 1명이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희망, '소득지원서비스'→'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 순

- '고용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대(32.5%)가 20대(29.7%)를 추월하여 전체 세대 중 최고

- '소득지원',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 '노인돌봄'은 연령 증가에 따라 필요도 비례적으로 증가, 반면 '주거' 필요도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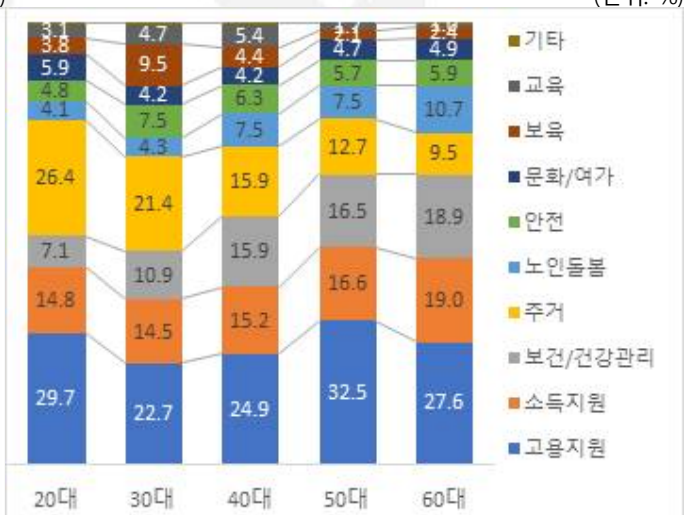
< 여건이 '좋아졌다' >

(단위: %)



< 확대해야 할 복지서비스 >

(단위: %)



주: 2년 전('19년)과 비교시 여건 변화에 대한 질문  
자료: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21년)

자료: 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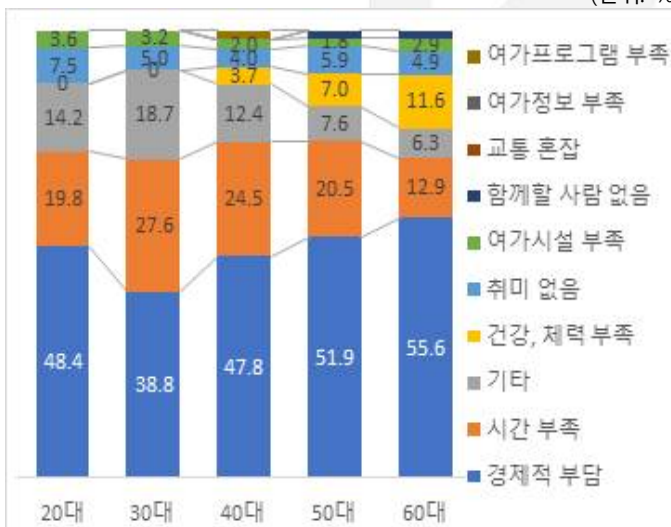
### (3) 여가 및 학습 활동

#### □ 여가 활동하고 싶어도 '비용'이 문제, 학습시설·정보 접근 어려워 평생학습 참여는 소극적

- 신중년의 60% 이상이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 '취미활동' 또는 '여행/관광' 선택
  - '취미활동'은 50대 37%, 60대 38.1%, '여행/관광'은 50대 30.5%, 60대 29.5%가 선택
  - '소득활동'도 10명 1명 수준으로 저연령층의 응답에 비해 많고, '학습/자기개발'은 50대는 7.1%, 60대는 5.2%로 적은 편
- 여가활동은 선호도에 비해 만족도는 30% 수준에 불과, 전체 세대 중 60대가 가장 낮으며 (21%) 여가 활동의 가장 큰 장벽은 '경제적 부담'
  - 세대별 여가활동 만족도('21년) 20대 32.7%, 30대 26.7%, 40대 27.3%, 50대 26.5%, 60대 21.0%, 60대는 크게 낮아져 5명 중 4명은 '불만족'
  - 여가활동 불만족 사유는 세대별로 다양, 50대 이후는 '경제적 부담'이 50% 이상으로 증가
  - 신중년은 시간적 여유는 많지만 경제적 부담과 건강 문제로 여가 활동이 어려운 상황
- 세대에 상관없이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연령 증가에 따라 참여율 감소, 60대는 경제·사회활동이 줄면서 급격하게 감소
  - 신중년의 학습 참여율 저하의 원인은 근로 및 사회활동 감소에 따른 학습의 목표의 부재, 다만,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은 연령 증가에도 참여율 감소폭이 적은 편, 60대 참여율 8.6%
  - 40대 이후 학습 불참요인(코로나 영향 제외)으로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비 부담'은 줄고, '근거리 교육기관 부재', '가족부양-시간부족', '동기-자신감 부족' 등은 증가

< 여가 활동 '불만족' 이유 >

(단위: %)



자료: 「사회조사」 ('21년)

< 평생학습 활동 >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참여율	직업능력교육	22.0	19.2	15.6	12.9	7.9
	인문교양교육	4.3	5.0	5.5	4.1	4.2
	문화예술스포츠교육	13.6	14.3	12.4	10.6	8.6
	시민참여교육	0.3	0.2	0.3	0.9	0.8
학습불참	직장생활-시간부족	47.6	52.1	48.9	48.2	32.3
	코로나 영향	22.6	22.2	22.6	26.0	36.2
	근거리 교육기관 부재	18.6	18.5	20.2	19.3	19.2
	가족부양-시간부족	11.6	9.4	13.7	12.5	10.9
	동기, 자신감 부족	11.6	6.5	12.0	14.0	12.9
	학습비 부담	2.7	18.5	15.3	6.7	3.3
	함께할 친구 부재	12.8	9.1	8.9	10.2	5.4
	교육 정보 부족	1.5	4.1	4.6	5.9	6.0
	건강	2.2	1.6	1.8	3.7	3.9
	교육시설 불만족	7.3	2.5	3.2	2.5	2.4
교육내용 불만족	2.6	1.6	2.5	2.2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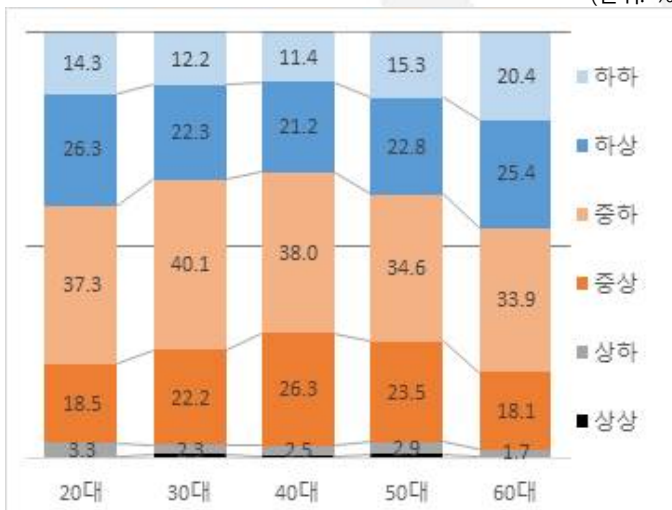
#### (4)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 41.5% '나는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3명 중 1명은 우울, 삶에 '만족한다' 38.7%

- 40대를 고점으로 계층 의식 하향화로 60대 '하층'(45.8%) 의식 최대, 50대와 60대간 계층 의식 차이 뚜렷, 50대의 5.5% 60대의 7.7%가 연령 증가로 중층에서 하층으로 하락 경험
  - 평균 소득이 가자아 많은 50대(3.9%)와 그 자녀세대인 20대(3.6%)의 '상층' 의식이 상대적으로 많고, 60대(2.2%)가 가장 적어
  - 반대로 '하층' 의식은 60대가 45.8%로 최고, 60대 이후 삶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져5)
  - 5년 전에 비해 계층 의식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
- 우울한 신중년(우울함을 느낀다 31.3%), 삶의 만족도 하락 (만족한다 38.7%)
  - 연령 증가에 따라 우울감이 증가, 신중년 3명 중 1명은 '우울', 60대 '우울함을 느낀다' 31.9%
  - 삶의 만족도도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 '삶에 만족한다' 50대 40.6%, 60대 36.4%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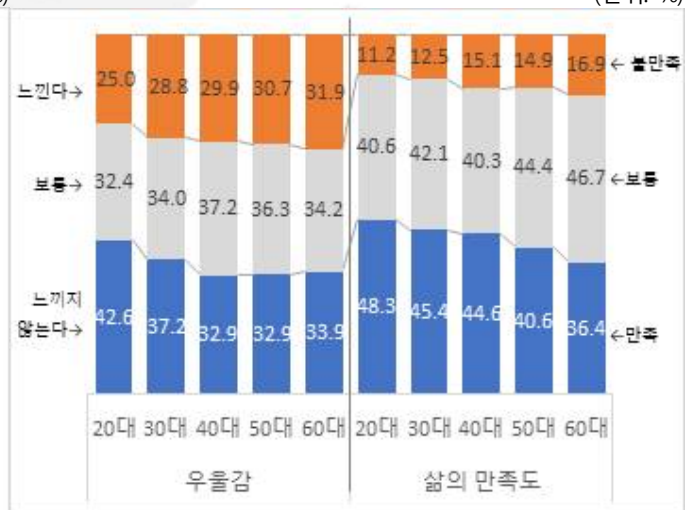
< 계층 의식 >

(단위: %)



<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

(단위: %)



주: 계층 의식은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의미

자료: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21년)

자료: 좌동

< 주관적 계층 의식의 변화('17 vs. '21) >

(단위: %p)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50대	0.2	0.7	1.5	2.4	-1.6	-3.1
60대	-0.4	-0.3	0.0	4.5	-3.9	0.1

5)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질 향상 및 우울감 하락(자료: 이보영, & 이용창. (2022). 여성 고령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생활 수준 기대감과 우울의 다중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4), 365-378. )



## II. 신중년 사회적 웰빙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 사회적 임파워먼트와 사회 자본 향상,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참여와 소통의 장 확대

- 좁아진 사회적 관계망에서 집단내 높은 신뢰도는 갈등 심화 야기, 사회 자본은 사회 통합과 직결, 지역공동체 중심의 ‘신중년 사회 자본 향상 프로젝트’ 가동
  - 8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빈부갈등과 이념갈등, 특히 소득격차와 학력·경력 차이가 큰 신중년은 잠재된 갈등 수준 高
  - 더욱이 60대에 ‘이웃’을 제외한 타인에 대한 포용성과 소통·신뢰도가 낮아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사회 자본 감소, 반면 이웃 등 친교 집단에 대한 높은 신뢰로 사고와 행동 반경 축소<sup>6)</sup>
  - 지역기반의 비영리 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을 전달체계로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사회적 관계망 확장 및 소통 개선을 시작으로 타인에 대한 포용성, 신뢰, 호혜성 제고를 유도
- 경제·사회활동의 감소로 사회적으로 소극적이고 무기력해지는 신중년, 자녀세대인 청년층과 소통·공감의 장으로 ‘2050투게더’(가칭) 프로그램 개발
  - 신중년은 상대적으로 가족간, 세대간 소통이 부족하다고 인식,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가족간 및 세대간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껴
  - 미시적으로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가족 및 공동체 역할을 제고하고, 거시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의 핵심 대상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세대간 소통 수단으로 활용
  - 여가, 학습, 봉사, 사회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자치구 공동사업으로 추진, 이를 통해 세대간 소통 확대와 사회 갈등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 ■ 신중년의 평생교육과 여가활동의 벽, 사회서비스 확대로 해결

- 미래 가장 큰 위협인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에 공격적인 투자 필요, 신중년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추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추진
  - ‘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조9000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12.3%, OECD 평균의 61.2% 수준에 불과<sup>7)</sup>, 절대적으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단기 문제해결보다 미래지향적·예방적 투자 필요
  - 신중년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웰빙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는 미래 고비용·저효율의 노인복지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이 ‘저출산’에 집중,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추가하고 신중년의 보편적인 웰빙 강화의 방향으로 개정 필요

6) 배광빈, & 류인권. (2020). 사회적 자본과 소통이 사회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2호, 174-193.

7) 보건복지부. (2023. 1. 27.).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미국의 공동체 기반 신중년 지원 사업<sup>8)</sup>

분야	사업명	내용
사회 공헌	양코르 수학·과학 교사 프로그램 (EnCorps STEM Teacher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전문직 인력을 공립학교 교사로 활용함</li> <li>○ 합격자들은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 양코르 하계 학교에서 3박 4일간의 전문성 개발연수를 이수함</li> <li>○ 처음 1년 동안은 강사나 보조 교사의 자격으로 매주 2-5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시작함</li> <li>○ 1년 후 합격자들은 개인 상황·적성을 고려해 (1) STEM 전문가 강사로 근무하거나 (2)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li> </ul>
세대 통합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미국 은퇴자와 지역 대학생 멘토 매칭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Corps(양코르)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캠페인은 만 50세 이상인 사람들이 지역 내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함</li> <li>○ 외국 학생들이 학교 및 지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li> <li>○ 정치,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화·토론하며 미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li> </ul>
취업 지원	뉴욕도서관 경력관리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플러스 성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50+ 성인(50+ Adult)' 이라는 도서관 이용자 분류 항목을 추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도서관 이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함</li> <li>○ 50+세대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필요한 구직 정보 센터, 커리어 코칭, 진로 정보, 취업 및 경력 관리 관련 강좌나 워크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li> <li>○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 그룹에 50+세대를 추가하여, 대여 문고 서비스 등이들이 뉴욕 공공도서관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함</li> </ul>

○ 평생교육은 사회적 관계망 및 소통 확대의 지름길, 뚜렷한 학습 목표의 제시, 신중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확대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 사회경제활동 감소로 학습 목표가 모호하고 학습 참여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신중년 평생교육의 장벽, 실질적인 학습 활용방안 제시 필요
- 특히 수요가 많은 직업능력교육과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의 경우, 학습 후 일자리 및 여가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와 협력 필요
-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으로 55세 이상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확대
- 상기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대상 확대, 고령자에 특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등을 포함하여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 평생교육법 개정 주요 발의 상황(2023. 9. 25 현재)

2023-04-20 박광온의원 등 14인: 고령자에 특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 도입

2022-09-26 민형배의원 등 13인: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까지 사용

8) 자료: 송민혜, 홍은선, 이병길, 김영석, 정건화, 민보람, & 박선영. (2019). 해외 50+ 정책 사례 분석.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싱가포르의 ‘스킬스 퓨처(SkillsFuture)’**<sup>9)</sup>: 고령화를 대비하여 재교육·재훈련을 위한 전 국민의 평생교육 및 포괄적 역량 향상을 위해 ‘15년부터 싱가포르는 스킬스 퓨처(SkillsFuture) 정책을 국가 핵심의제로 추진 중

-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 기능과 노동부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 고등교육·스킬(higher education and skills) 담당 장관이 스킬스 퓨처 정책 총괄
- 만 2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약 42만원(500SGD)의 스킬스 퓨처 바우처를 제공
- 평생교육·훈련 강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법(pedagogy)을 지도하고, 심사를 거쳐 ‘Adult Educator’ 자격 부여

※**일본의 ‘공민관’**<sup>10)</sup>: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시설로 ‘공민관’ 설치, 공민관은 지역주민활동의 거점이며 생애학습의 지방분권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 수행, 우리나라는 평생교육 시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과 달리 일본은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생애교육 추진,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생애학습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 상호연계와 협동을 규정

○ **신중년의 60%가 취미활동이나 여행을 원하지만 50%는 ‘경제적 부담’이 문제, 신중년 문화 바우처 즉시 도입, 이동 장벽 완화를 위해 ‘문화동행서비스’(가칭)도 병행**

- 신중년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화바우처(문화누리카드) 대상을 완화하여 신중년에게 확대 적용
- 건강 문제나 교통시설 이용 장애 등에 의한 이동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편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의한) 지역 서비스와 연계한 문화동행서비스 병행 도입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시도지역 주관부처에서 추진
- ‘23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은 11만원

9) 박윤수. (2019).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KDI.

최영섭. (2017), SkillsFuture 등 싱가포르 직업훈련체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 정일선, & 최은수. (2015). 일본 생애학습 (生涯學習) 의 연구동향-[일본생애교육학회연보 (日本生涯教育學會年報)] 2004-2013 년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 연구, 11(2), 153-181.

## [별첨 1] 신중년을 위한 민간 및 제3섹터 지원 조직- 해외 사례

구분	사업명	내용
독일	이니셔티브 50플러스 연방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 50세 이상 인구 약 3천4백만 명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방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이익집단임. 베를린에 중앙사무실, 이사회, 연방 사업부를 두고, 각 지역마다 지역조합 및 지역사업부들로 구성되어, 협회 차원의 독립적인 비전과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음</li> <li>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50세 이상 시민들을 위해 국가의 지원 이외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50세 이상의 독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협회를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직접적인 활동도 가능함</li> <li>정치, 언론, 연구 분야 등 50+세대의 사회적 역할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자체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음</li> <li>대표적인 고령층 취업 장려 프로그램으로 이니셔티브아르바이트50플러스(Initiative Arbeit 50Plus)가 있으며, 인구변동이 미래의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마련됨</li> </ul>
미국	앙코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기업가 마크 프리드먼(Marc Freedman)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은퇴자 또는 만 50세 이상의 중년들의 제 2의 인생 설계를 돕는 단체임</li> <li>앙코르(Encore.org)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삶과 노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함</li> <li>주요 사업으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Generation to Generation</u>: 일종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은퇴한 50+ 세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활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활동</li> <li>2) <u>Encore Fellowship</u>: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전문가를 사회적 목적의 단체와 연결. 6개월-12개월 동안 유급으로 업무를 수행</li> <li>3) <u>Encore Conference</u>: 개인과 사회운동 단체의 리더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과 학습을 통해 더 많은 지역.부문.기관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행동을 도모</li> <li>4) <u>Encore Network</u>: 크거나 작거나 신생이거나 오랜 전통이거나 서로 다른 분야의 단체들과 리더들을 회원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연결하여 아이디어를 활용</li> <li>5) <u>The Encore Prize</u>: 50+ 세대의 재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성과를 심사하여 \$100,000 상금과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li> </ol> </li> </ul>
스웨덴	카린스 뒷트라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린스 뒷트라르(Karins Döttrar, '카린의 딸들')는 사회적 기업 중 하나로, 직조나 수공예제품을 생산하고 있음</li> <li>직업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는 물론이고 직원 역시 모두 여성이며, 이곳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장애, 마약중독,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 각자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된 사람들임</li> <li>최근에는 버려진 천이나 청을 모아 염색하고, 앞치마, 파우치, 가방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li> </ul>
싱가포르	NTU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TUC는 노동 조합의 전국 연합이고, 싱가포르 전체 분야에 걸친 전문가 단체와 파트너 네트워크임</li> <li>NTUC의 목적은 싱가포르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멤버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음</li> <li>세부 사업으로 직장, 커리어, 전문적인 개발 상담 서비스,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구축, 정서적 지원, 기술 훈련,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새로운 직장 또는 이직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li> </ul>
영국	Age U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고령화를 대비하여 여러 정책을 실시하는 영국 최대의 비영리 단체로, Age UK는 잉글랜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Age Wales(Cymru), Age Scotland, Age NI(Northern Ireland)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연맹의 형식으로 운영됨</li> <li>고령층 인구의 웰빙 증진, 보건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외에도 빈곤고령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재취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제공함</li> </ul>
	TA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적인 자선단체인 태인(TAEN: The Age and Employment Network)은 고용상의 연령차별 폐지와 장년층의 고용연장을 목표로 활동하고 연령 및 고용이슈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컨설팅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장년층 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제공 및 경력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li> </ul>
	NES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의 민간 자선 단체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혁신 재단임</li> <li>고령사회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Ageing Well Challenge Prize)와 고령화 혁신 프로그램 현황 지도(Living map of Ageing Innovators) 등을 수행함</li> </ul>
일본	고령자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과제를 고령자들이 조합원으로서 수혜자이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참여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한 형태임</li> <li>복지, 취업, 삶의 보람.문화 활동, 생활.요양상담 등의 사업 운영</li> </ul>

자료: 송민혜, 홍은선, 이병길, 김영석, 정건화, 민보람, & 박선영. (2019). 해외 50+ 정책 사례 분석.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별첨 2] 사회 자본의 개념

- 사회 자본은 개인 및 집단 간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학자별로 정의 다양
- Coleman(1990: 300-321)은 사회 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구조에 행위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하고 결속하는 능력으로 정의
- Putman(1993:167)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의 특성을 사회 자본이라고 정의(이탈리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사회적 자본이 협력은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 Fukuyama(1996)도 사회에서 신뢰가 확립되었을 때 사회적 자본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 자본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연대하는 인적자본의 구성요소로 정의
- 종합하면 사회 자본이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 및 규범으로 신뢰, 유대, 협력, 상호호혜와 같은 행동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에 의해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는 신뢰, 네트워크, 집단적 협력, 이타주의, 제도적 규범 등으로 구분됨

(자료: 배광빈, & 류인권. (2020. 6). 사회적 자본과 소통이 사회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2호, 174-193. )

- 일반적으로 사회 자본이란 일정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구성원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을 의미, 사회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연결망으로 개념화
- 연고집단, 가족, 친지, 친구관계 등 개인을 넘어선 집단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참여, 지역사회와 공동체, 신뢰, 규범 등 도덕적이면서 문화적인 차원, 사회관계의 확장을 의미하는 관계망, 네트워크, 시민단체 등 사회 차원의 제반 특성으로 개념화

(자료: 조권중. (2010). 서울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리포트, (70), 1-25. )

## [참고문헌]

- 고대유. (2022). 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20(1), 147~170.
- 박윤수. (2019).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KDI.
- 배광빈, & 류인권. (2020). 사회적 자본과 소통이 사회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2호, 174-193.
- 보건복지부. (2023. 1. 27.).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 송용찬, & 김유화. (2021). 사회자본이 코로나 19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5, 47-71.
- 오민지. (2022). 사회갈등인식이 국가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4호, 63-89.
- 이보영, & 이용창. (2022). 여성 고령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생활 수준 기대감과 우울의 다중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4), 365-378.
- 정순돌, & 성민현. (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정일선, & 최은수. (2015). 일본 생애학습(生涯學習)의 연구동향-[일본생애교육학회연보(日本生涯教育學會年報)] 2004-2013년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 연구, 11(2), 153-181.
- 조권중. (2010). 서울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리포트, (70), 1-25.
- 최영섭. (2017). 'SkillsFuture 등 싱가포르 직업훈련체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민혜, 홍은선, 이병길, 김영석, 정건화, 민보람, & 박선영. (2019). 해외 50+ 정책 사례 분석. 서울시50플러스재단.